

등 록 금 심 의 위 원 회 회 의 록

| | |
|-------------------|---|
| 일 시 | 2020. 12. 16(수) 오후 3시 |
| 장 소 | 교무회의실(일우중앙도서관 5층) |
| 참 석 자 | 홍성만(위원장), 이태섭(교직원), 장우열(학생), 임대윤(학생), 차지산(학생)- 5명 |
| 불 참 자 | 정호병(교직원), 최수영(교직원), 박해민(외부전문가), 김순남(동문) |
| 안 건 | 1.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차입 및 교육부 기채 허가 승인에 관한 건 |
| 회의내용 및 결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만 위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간사에게 성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정현 간사가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홍성만 위원장이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차입 및 교육부 기채 허가 승인 건과 관련하여 경영 기획과 김희찬 계장에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함. - 김희찬 계장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장기차입권 차입 및 기채 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심위 자료에 토지가 없는데요 지금 본문 첫 번째 학교법인 우일학원(안양대학교) 융자금 청구를 보시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대학평가 인증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인증평가를 받게 되면은 다섯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이 중에 4개의 영역이 저희가 충족이 되었고, 한 개의 영역인 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부분이 미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건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또한 지난번 2020년 1월에 등심위에서 이제 장기 차입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학융자금에 대한 부분을 차입하는 것으로 그때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부 민원조사 때문에 거기 민원조사에 이사장님이 임용 임원 취소가 나타나게 되니까 융자금 계정이 저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융기관을 바꿔서 지금 안건을 올리고 처음 봤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기숙사 건축을 하게 되면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재정여건이나 50억을 차입을 안 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안건을 먼저 삼았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 공문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9월 4일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50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 쪽을 보시게 되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결과통지가 왔습니다. 결과통지가 어떻게 왔냐 면은 교육부 민원 조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2020년도 배정 사업에 대한 융자 배정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 기획처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융자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뒷장을 보시게 되면 금융기관을 저희가 변경해 가지고 그 안건으로 소개되는데요. 저희가 기숙사 건축관련해서 금융계약 차입은 은행을 선택할 때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재무과가 일단 저희보다 전문가니까요. 협의를 해서 3개의 금융기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3개의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입니다. 3개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가평가 금리의뢰를 했을 때, 농협은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에 한 번도 한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제안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신한은행이 2.93 하나은행이 2.94로 나와서 신한은행이 신용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

워 이게 최종은 아닌데, 신용평가를 했을 때, 이게 2.92로 나와서 지금 기획처랑 총장님한테 결제를 올려가지고 신한은행으로 일단 정해져 있고요. 이를 등심위에서 의결하고자, 안건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만 위원장이 학교 내부 사정에 의해서 외부 사학 재단에서 차입에 관한 문제들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해서 차입을 하고자 하는 얘기라는 재설명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길 위원들에게 요청함.
- 장우열 위원이 두가지 질문을 함. ” 첫 번째는 기숙사 부분이 대학인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추후에 있을 대학인증평가에 언제까지 기숙사가 완공이 되어야지, 추후에 있을 대학 인증 평가에 악영향이 없을지 혹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라고 질문함.
- 이에 김희찬 계장이 ” 일단 예정은 저희가 2020년도의 한계 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증평가 대교협에서 7월 달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심사를 하러 7월에 나오는데, 일단 완공 자체가 7월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도 7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시하기를 원래는 7월까지 완공이 됐을 때 100%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적률이 80% 이상이 되면 충분히 인정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함.
- 장우열 위원이 김희찬 계장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함. ”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현재로서 차입하기 전에, 저희 등록금 회계로 우선 약 20억 정도가 기숙사 건축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등록금 회계로 비용이 발생한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차입하게 되면, 그 대학인증 평가에 영향이 가는지,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함.
- 김희찬 계장이 답변함. ” 등록금 회계로 지금 선 지출된 부분은 차입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선 지출된 부분은 회계 규칙상, 지금 미수금, 미지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억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건 자동으로 산재처리 되는 거구요. 그걸 차입을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70억이 건축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비 쪽 예산으로는 50억을 충당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입을 추진하는 거고, 이거로 인해서 인증평가가 되게 되면은, 만약 인증평가가 저희가 떨어지게 되면은 국가 유형 1하고 기타 국고들을 다 받진 못해요. 그게 워 한 최대로 봤을 때 1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평가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이 장기차입금을 얻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 이에 장우열 위원이 “장기차입 때문에 장기차입 건만 가지고, 역량인증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함.
- 이에 김희찬 계장이 “그건 없는 거예요. 장기차입금을 받는다고 해서 역량인증 평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라고 얘기함.
- 장우열 위원이 김희찬 계장의 답변에 감사를 표함.
- 마지막으로 홍성만 위원장이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위원들에게 요청을 함, 의견이 없자 “ 그러면 지금 아마 총학생회한테서 궁금한 점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기타 의견이 없다면 뭐 이것으

로써 차입 및 교육부 기채 승인 건에서 동의해주시면 동의해주신다고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동의 제청을 구함.

- 이에 장우열 위원이 제청하고 이태섭 위원이 동의 함.
- 이 외에도 남은 모든 위원이 함께 다같이 동의 제청 함.
- 홍성만 위원장이 모두 동의 제청 해주셨다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끝인사와 함께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폐회 선언을 함.

위 원 장 홍성만

(인)

위 원 이태섭

(인)

위 원 장우열

(인)

위 원 임대윤

(인)

위 원 차지산

(인)

위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20년 12월 16일